

李 당선자 지역공약 정책실현 강력 주문

광주시·전남도, 인수위에 실천방안 제안

17대 대통령선거가 끝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명박 당선자의 지역 공약이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실현에 나섰다. 광주·전남도는 이 당선자의 광주·전남 공약 반영을 위해 선거 다음 날인 20일 전략회의를 갖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광주시·전남도는 일단 이 당선자의 공약이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현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공약을 구체화하는 한편 누락된 일부 현안에 대한 재정리에 돌입했다. 시·도는 이 당선자의 공약 실현방안 등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

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시·도는 인수위에 참가하는 각계 인사 및 지역 인사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으며, 향후 인수위가 꾸러지면 이들 상대로 이 당선자의 선거공약 실현을 위한 조처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 당선자의 선거공약이 임기 초반에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선거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 당선자가 광주를 대상으로 내건 11개 공약 대부분이 광주 시가 정부에 요청한 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해 만족한 상황이지만 광주권

외곽 순환도로, 광주~완도 고속도로,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는 이 당선자 측의 공약이 없어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0일 오전 이 당선자의 전남 지역 공약을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열고 선거공약 구체화 및 실행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도 임기 내 건설 ▲무안공항 활성화 등 전남을 '국토 서남권 해양·관광·물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당선자의 공약이 전남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선 이들 공약에 담긴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전남도는 이 당선자의 공약이 빠진 것이 없게끔 전남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날 말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들어지면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이 당선자의 공약이 차기정부의 핵심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도는 그러나 참여정부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 온 일부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이 차기 정부에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 기업·혁신도시 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와~ 방학이다

신나는 겨울방학이다. 20일 방학식을 마친 광주 두암초등학교 학생들이 환호하며 교문을 나서고 있다. 이날 초등학교 일부가 방학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내년 1월 2일까지 광주 시내 초·중·고교가 일제히 겨울방학에 돌입한다. 초등학교는 내년 1월 말~2월 초, 중·고등학교는 2월 말 개학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제·삶의 질 선진화 열겠다”

이명박 당선자 첫 회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통합 속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변화 없이는 선진화도 신(新) 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 확정 후 가진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와 삶의 질 선진화 및 신발전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운 상승의 새로운 변화를 일구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고한 화합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변화는 우리 시대의 산소”라고 전제, “분노와 증오와 거지의 정치로 우리 사회를 선진화할 수 없다. 저부터 마음의 응어리가 있다면 풀겠다”면서 “어이는 서로 적이 아니고 필요한 반대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한다. 이것

이 바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대의 요구”라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신발전체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이어 “변화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기초질서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을 선택했다. 효율과 혁신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국정이 안정되도록 현 정부와 의논하여 순조로운 국정이양을 이루겠다. 공직 사회는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정책과 관련,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지방 경제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되살아나도록 하겠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초기

부터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북핵문제에 대해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반드시 열겠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북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복합적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과거와 잡았던 손을 풀고 미래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나라 'BBK 특검 거부권' 요구

청와대 일축

한나라당은 2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추가조사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거부 불가 방침을 고수했으며, 대통령직수선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그만두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이런 법은 거부권을 행사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날 “나는 특검

을 받아서 특검에서 무혐의로 확실하게 다시 나타나면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당은 이명박 당선자가 특검을 통해 깨끗이 의혹을 규명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꿀 상황변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당선자도 수용하겠다고 했고, 법무부도 수용 결정까지 내린 마당인데, 이 당선자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의혹을 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관련기사 3·4·5·6·7·8·13면

알림

제 53 회 전국최대의 호남 예술제

음악부 지정곡 발표 16편

2008년 4월22일~6월30일

한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인 호남예술제가 2008년 4월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등지에서 열립니다.

제53회 호남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참가지역: 국내 거주 전국 초·중·고등학교
- ▶ 경연기간: 2008년 4월22일(화)~6월30일(월)
- ▶ 종 목: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논술
- ▶ 신청기간: 4월22일(수)~4월11일(금)에 재인턴(내선) 우편 Fax 접수
- ▶ 자세한 일정은 2008년 3월 초에 발표
- (http://www.kwangju.co.kr 참조 - 문의: 062-220-0541)

▶ 시 상

- 우수학교/우수지도교사 시상
- 개인·단체: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합창·합주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최고상, 대상: 소정의 장학금 지급

▶ 주최: 광주일보사

▶ 후원: 문화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유망학원 장학 57만 원 지원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남부대학교는 2007년 11월 15일 개교한 이래 100여 명의 학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는 2007년 11월 15일 개교한 이래 100여 명의 학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i.ac.kr

전남과학대학은 2007년 11월 15일 개교한 이래 100여 명의 학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도 바로 당신입니다.

The Living Ocean and Coast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코 늦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세계를 사로잡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여수에서, 당신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EXPO 2012

여수시·여수시문화위원회